

문화예술 즐기는 '모두'가 예술가



오는 29일 광주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가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에서 열린다. 지난해 '아트날라리'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광주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 2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등 일대 동네예술배움터 등 40개 단체 성과 공유...공연·전시·선물 이벤트

'음악으로 건네는 인사', '미니 워크숍', '서로를 기억하는 갤러리', '네트워크 파티'...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성과를 한자리에서 가능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가 열린다. 일명 '광주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로 주제는 '예술이 넘쳐나도 꺾어야 보배'.

올해는 오는 2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야외 주차장과 아트스페이스 테라스에서 열리며 '동네예술배움터', '주말예술배움터', '창의예술학교' 등 40여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인다.

오후 1시에 진행되는 개막식은 참가자들과 함께 울동철린지로 꾸민다. 판스토키가 만든 아트날라리 테마송 '우리는 동네예술가'에 맞춰 울동 퍼포먼스를 펼치는데 울동은 주관단체인 루트머지 유

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는 해시태그(#2022아트날라리)를 달아 SNS나 채널 등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음악으로 건네는 인사-작은 공연', '모두를 위한 미니 워크숍-아트 북스', '서로를 기억하는 갤러리-작품 전시', '함께 꿰고 있고 엮고-네트워크 파티' 등으로 짜여져 있다.

무대에서는 루트머지의 풍류 사운든 가야금 연주를 비롯해 마음놀이터의 양산마을 중창단,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일상의 '영광진창 오케스트라' 공연이 펼쳐진다.

아트스페이스 야외 테라스에서는 '서로를 기억

하는 갤러리-작품 전시'가 진행된다. 또한 하니편지, 협동조합 어감을 비롯한 지역 내 8개 참여단체 참여자들의 작품과 영상 전시도 관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창의예술학교, 청년인생설계 학교 등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삶의 변화 등을 들을 수 있는 영상 등도 전시된다.

특별한 예술수업도 마련돼 있다. 오후 2시에는 야외테라스에서 태이움직임 교육연구소 신희홍 대표가 '너와 함께 춤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이 펼쳐지며 오후 3시에는 동산대 뮤지컬실용음악학과 박명진 교수가 '목소리와 몸을 풀고, 뮤지컬'을 주제로 뮤지컬 실연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편 개막식에 앞서 오전 11시 미디어338에서는 아트크리에이티브 그룹 (주)행복한상상의 송경희 대표가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에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의 062-670-576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민에 '클래식의 위로'

내셔널솔리스트앙상블 기획연주회 30일 금호아트홀



지휘자 서희태 테너 윤병길 소프라노 김선희 소프라노 박선경

내셔널솔리스트앙상블 기획연주회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30일 오후 7시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광주시 문화예술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톨모텔 서희태 지휘자의 해설이 함께하는 무대로 꾸며진다.

2018년 창단한 내셔널 솔리스트 앙상블은 광주·전남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로 이뤄진 협연앙상블로, 각종 기획연주회와 특별연주회,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광주 공연예술 문화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공연은 전남대 교수로 재직 중인 테너 윤병길, 한 국성악가협회 이사인 소프라노 김선희, 전남대학교 강사 소프라노 박선경, 광주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오보에 송애리의 협연으로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번 공연에서는 테너 윤병길의 김연준 '청산에 살리라', 소프라노 김선희의 샤를 구노의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 소프라노 박선경의 베르디 '운명의 힘' 중 '평화를 평화를 나의 신이여' 등이 선보여진다. 또 송애리의 치마로사의 '오보에 협주곡 C장조', 엔니오 모리코네의 '가브리엘 오보에'를 연주한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로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10-8385-2485.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플루트와 관악기 '로맨틱 만남'

광주시향·윤혜리 협연...다음달 18일 전남대 민주마루



낭만적인 플루트 음색과 웅장한 관악기의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연주회가 열린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68회 정기연주회 '로맨틱'이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열린다.

예술감독 홍석원의 지휘로 펼쳐지는 이날 무대는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1번 G장조'로 막을 올린다. 이 곡은 모차르트의 사실상 유일한 플루트 협주곡으로,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플루트 음색과 연주자의 기교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날 협연하는 플루티스트 윤혜리의 연주로 플루트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 윤혜리는 10대때부터 전설적인 플루티스트 장피에르 랑팔, 줄리어스 베이커와 미국 카네기홀 연주회를 마치고 제네바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3위를 수상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관악 연주자로 자리매김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교수로 부임해 아시아플루트연맹 상임이사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공연의 마지막은 브루크너 교향곡 4번 '로맨틱'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낭만 교향곡 거장 브루크너 작품 중 유일한 부제를 가진 곡으로 마치 독일 옛 신화 장면을 그려낸 듯 장엄하며 웅장하다.

티켓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문의 062-613-8241.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몰토 콰르텟

바흐 재해석 4색 하모니 '몰토 콰르텟'

문예회관 기획공연...다음달 7일 광주시청 대회의실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포시즌 네 번째 실내악 시리즈를 빛낼 '몰토 콰르텟'이 11월 7일 오후 7시 30분에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원현국립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독일 슈페르거 더블베이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더블 베이스 성민제와 재즈 베이스 최진배, 클라리넷 장종선, 피아노 이한열로 구성된 사중주단 그룹 '몰토 콰르텟'은 이들만의 음악적 색을 통해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들은 이날 무대에서 정형적인 현악 사중주 형태에서 벗어나 더블베이스 두 대와 클라리넷, 피아노로 구성된 콰르텟으로 바흐의 대표작이자 화려한 작곡 기교가 담긴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재창조한 '어나더 바흐-마스터피스'를 선보인다.

바로크 음악 특징에 ECM 스타일의 요소를 융합해 바흐의 레퍼토리를 한자리에서 즐겨볼 수 있다.

다섯번째 실내악 시리즈 '뷰에르 앙상블'은 11월 21일에 열린다. 러닝타임은 75분이며, 티켓은 S석 3만 원, A석 2만 원(8세 이상 관람)이다.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 가능하다. 문의 062-613-8235.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품질보증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